

「5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 「5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가 8월 12일 오후 2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 김관복 학교지원국장
과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육정책관의 인
사말에 이어 육아정책연구소 조복희 소
장이 「5세 누리과정」 제정(안)의 개요,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김영옥 전남대학교 교수,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인혜 현대열린어린
이집 원장, 신경은 한송이유치원 원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장미라 면일
어린이집 학부모를 비롯하여 TFT에 참여한 김명순 연세대학교 교수와 이정욱 덕성여자
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정부가 지난 5월, 취학 직전 1년 만 5세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을 공표함에 따라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3개월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로 만 5세
공통과정 개발 TFT를 구성하고 「5세 누리과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이는 만 5세 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전체로 확대하고, 만 5세 보육·교육비 지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7월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5세 누리과정」을 만 5세 공
통과정의 새 이름으로 선정하였다.

「5세 누리과정」의 최종(안)고시는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올해 안으로 「5세 누리과정」해설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를 위한 연수도 연말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
역, 자연탐구 영역의 총 5개 영역 내에서 20개의 내용범주, 62개의 세부 내용으로 나뉘
어 구성되어 있다.